

광주 남부경찰, 백운1동 방법대 광주경찰청장상 전달



광주 남부경찰서(서장 조상현)는 지난 5일 2018 광주지방경찰청 베스트 자율방범대로 선정된 백운1동 자율방범대(대장 김창현)에 인증패를 전달하고, 우수대원에 광주지방경찰청장상을 전달했다. <광주남부경찰 제공>

서진건설, 광주 영신원에 햇감 전달



광주지역 증권건설업체 서진건설(회장 신명진)이 지난 5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광주영신원에 올해 수확한 햇감을 전달하고 있다. 서진건설은 회사 소유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감을 재배, 수년 전부터 선광학교와 선우학교 등 사회사회계층에 전달해오고 있다. <서진건설 제공>

한미문화예술재단USA '한미 문화예술의 날' 공모전



한미문화예술재단USA(이사장 이태미)는 최근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예총 회관에서 '2018 한미 문화 예술의 날' 행사를 열고 공모전과 종합예술경연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당선작은 오는 12일까지 예총회관 백련갤러리에 전시된다. <한미문화예술재단USA 제공>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에어필립 업무협약



(사)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회장 최범세 시열병원장)는 지난 5일 에어필립 광주사무소에서 호남기반 지역 항공사인 (주)에어필립과 광주의료관광 및 지역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 제공>

노점상 하며 번 1억 장학금 쾌척... "못 배운 한 풀었어요"

차비 500원 아껴 전남대 장학금 기부한 김정순 할머니

1만원짜리 현금·1000만원짜리 수표 비닐봉지에 담아와 오늘이 내 생애 가장 기뻐...건강 허락하면 계속 후원할 것

광주 상무지구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가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의 김정순 할머니(73)는 6일 전남대학교를 찾아 정병석 총장에게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 김정순 할머니는 22년 전 홀로 된 이후 함평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2남 2녀를 키워오다, 7년 전 우연히 상무지구 길거리에 고구마를 내다 팔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노점이 조금씩 자리잡으면서 높은 호박, 깨, 양파, 고추, 대파, 콩, 팥 등 보따리 수도 함께 늘었다. 그 때문에 버스기사의 모진 구박도 들어야 했지만, 차비 500원을 아끼려고 짐을 들어 올리고 내려야 하는 환승을 마다하지 않았다. 김 할머니 집에는 보일러가 없다. 깻대처럼 밭농사에서 나는 부산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산다. 그 흔한 핸드폰도 없다. "그런 것 저런 것 다 하고 나면 이런 장학금

못내놓지랴." 할머니의 손 끝 마디는 굵어있다. 성한 손톱도 찾아보기 힘들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손가락이 갈퀴처럼 굵을 정도로 열심히 살면서 이 돈을 모았어요. 대기업 회사들에 비하면 적지만 몰라도, 우리같은 사람에겐 큰 돈"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1946년생인 김 할머니는 어려서 못 배운 한이 지금도 가슴에 맺혀있다. "8살 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함평 해보서를 두 번이나 갔었는데, 아버지가 '계집아기가 나돌아 댕기면 못산다'며 책보를 뺏어버렸다. 그때부터 '나는 돈 벌어서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오늘에야 그 약속을 실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소 들뜬 목소리로 "전남대에 남생 처음 와 봤다"며 정병석 총장에게 안긴 김 할머니는 "오늘이 내 생애에 가장 기쁜 날"이라고 두 번 세 번 되뇌었다.



상무지구 금요시장 노점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김정순 할머니.

거액의 장학금 기부자이지만, 김 할머니의 생활은 앞으로도 변함없다. 상무지구 길거리 좌판이 상무금요시장 노점번호 '라-11'로 옮겨졌기에, 한 숨 들릴 만도 하지만 상인들이 개근상을 줄 정도로 지극정성을 다했던 데다, "장학금이 소진되더라도 건강이 허락된다면 계속해서 후원할 생각"이니, 게으름을 부릴 여유가 없다. 김 할머니는 1만 원짜리 현금봉투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야채 담은 파란색 비닐봉지'에 담아왔다. 돈 봉투를 건네고 서야 "이제야 비로소 배움에 대한 깊은 한

을 풀게 됐다"며 "매년 학기 초에 대학생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주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사람'이 먼저 되어 한다는 말과 함께 꼭 안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정병석 총장은 기부증서보다도 김 할머니의 손을 먼저 부여잡은 채, "농사일과 노점상으로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느 어머니의 손보다도 따뜻하고 곱다"며 "전남대 모든 학생들에게 김 할머니의 고귀한 뜻을 전하고,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는 인재를 키우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혁중 광주대 총장 소통·화합 릴레이 간담회

45일간 42개 학부 만나 주요 정책 발전방안 모색

광주대학교 김혁중 총장이 릴레이 학내 간담회를 열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대학 발전을 견인해 주목 받고 있다. 김혁중 총장은 지난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45일 동안 학교 내 42개 학부(과)를 차례로 방문해 교수 및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김 총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학부(과) 및 부서별 현황과 계획, 건의사항 등을 들은 뒤 대학의 주요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 총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선 본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이 제시한 발전계획은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전 교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광주대가 지난 대학인증평가와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지도와 교육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행사가 있었지만 격의 없이 소통이 이뤄진 총장과 간담회는 이례적"이라며 "대학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지는 등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소외계층과 '사랑 더하기 문화체험'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사단법인 한빛(이사장 정광익)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원생들을 대상으로 '사랑 더하기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 76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견학, '2018TCR코리아 대회' 관람, 카드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소외 계층과 함께 공사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손미경 조선대치과병원장 광주시장상 수상

손미경(사진) 조선대치과병원장이 지난 5일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장상을 수상했다. 손미경 병원장은 광주시와 함께 2017·2018년 보건복지부 지원 지역특화의료기술 사업을 2년 연속 수주해 광주시 의료관광지원센터·전남대병원·정연한방병원과 함께 의료관광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관광산업과 의료관광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조선대치과병원은 전국 11개 대학치과병원 중 유일하게 의료관광지원센터를 병원 내에 개설·특화함으로써 해외환자유치와 해외 치과의사 교육을 통해 의료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최동민(광주일보 강진지사장)·박윤순씨 딸 다영양, 김수길·유미연씨 아들 달현군=17일(토) 오후 3시 순천 더혜음 2층 르누아홀 061-745-3636. ▲임금택(광주일보 서울지사장)·김소영씨 딸 수진양, 김욱기·이현남씨 아들 정현군=24일(토)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서초동 KW컨벤션센터 4층 다이아몬드홀 02-598-3000.

동창회

▲광주복성중 제18회 동창회 월례회=19일(월) 오후 6시 30분 광주일고 앞 일송정(회장 안규원 062-523-1300). ▲장흥 용산중 제10회=24일(토) 오후 7시, 서울시 사당역 13번 출구 정담은(010-2363-0124).

증친회

▲신창행씨 사직공파 후 정로공 종원 발기인대회=10일(토) 오후 5시 서울시 종로

구 3가 국일관 옆 한일장(맹정후 010-3117-7454).

알림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C로고)공모=12월7일까지, 만 19세 이상 광주시민과 광주지역 대학(원)생 등 개인 또는 팀(2인 이하) 센터 홈페이지(gjdisc.or.kr)참조. ▲사단법인 한국술사랑총연합회 창립총회(중앙총재 이상암)=12월1일(토) 오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 3층 010-2357-0001. ▲광주전남연구원 남도학연구센터 '공간으로 읽는 남도학' 무료 강좌=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나누시 빛가람동 광주전남연구원 8층 상상마루 061-931-9436.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

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치유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 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

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모집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분부. 062-515-752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솔,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

351-1206. 부음 ▲채선덕씨 별세, 최상운·상만·상열·상민·상금·미애씨 모친상, 이성숙·하미영씨

시모상, 최상철씨 빙모상, 발인 7일(수) 낮 12시 30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윤희철씨 별세, 찬씨 형제상, 발인 8일(목) 오전 8시 30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Advertisement for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We pray for the afterlife of the deceased). It lists names and dates for funerals, such as '본관 2층 7호 故이옥남 님(여/87세)' and '신관 4층 402호 故안수복 님(여/74세)'.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그린장례식장' (Green Funeral Home) with phone number 062-250-4455 and website www.그린장례식장.co.kr.